

## [EU] 유럽연합-미국간 교역 확대

미국 Barack Obama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장인 Jose Manuel Barroso,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 회장인 Herman Van Rompuy 는 11 월 말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성장을 위한 교역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동의했다.

미국 농산물은 이러한 노력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미국 농무부인 USDA 의 해외 농업국 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에 따르면 2011 년 미국이 유럽 연합 27 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한 농산물은 10.2 십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2012 년에는 11 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. 유럽연합은 캐나다, 멕시코, 중국, 일본에 이어 5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,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시장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약간 큰 규모이다. 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3 번째로 큰 수입지역으로 2012 년에 캐나다 20 십억 달러, 멕시코 18 십억 달러에 이어 16.8 십억 달러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2010 년 유럽지역으로 수출된 미국 농산물은 10.9 십억 달러로, 견과류 1.5 십억 달러와 대두 및 대두유 1.5 십억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. 과일, 야채, 주스는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으로 연간 834 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담배 441 백만 달러, 와인 및 맥주 438 백만 달러로 나타났다. 대두와 관련 제품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때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반면, 견과류는 평균 5%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. 또한 과일 및 야채는 15-20%의 관세율을, 주스의 관세율은 무려 37%까지 상승하고 있다. 비제조된 담배에는 15%의 관세가, 제조된 담배에는 35%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맥주는 무관세를 적용되고 있는 반면, 와인은 종가세로 평균 8.9%을 적용 받고 있다.

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연합 농산물 제품은 원예작물과 가축 및 육류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,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은 곡류, 원예작물, 가축 및 육류 제품, 유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.

상공회의소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, 하나는 관세이고, 하나는 무역장벽에 관한 것이다.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규정과 기준의 호환성이다. 예를 들어, 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소고기에 함유된 호르몬과 유전자 변형된 곡물은 즉시 통관거부 되고 있다.

출처: [www.freshplaza.com](http://www.freshplaza.com)